

경제와 환경사이의 갈등 해소 : 안산 지역난방사업 연료 선정 사례

안병훈* · 백승규** · 안영환* · 최병삼*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 순천향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환경과 경제적 효율성사이의 갈등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세계의 고민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은 각국의 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심지어는 정부의 부처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지역난방 사용연료를 둘러싼 국내의 정부 부처간 갈등 또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갈등 및 해소 사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내의 정책입안자들 및 기업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으며, 다른 갈등 중재에도 여기에서 사용한 해법의 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지역난방 사용연료의 갈등을 둘러싼 상황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갈등의 배경으로는 지역난방의 역사와 특성,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제도의 장단점, 실제 대상 사례인 안산 지역난방사업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그 다음, 안산 지역난방사업의 연료선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환경부,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시, 지역주민, 지역도시가스회사 등의 입장 및 입장의 공통분모를 도출하였다.

각 연료에 대한 평가는 크게 경제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지역난방 확대보급 유인, 기타 등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경제성은 연료 및 시설에 대해 연간등가법을 사용해 계산하였고, 환경성은 AHP 방법론을 사용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안산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지역난방 확대보급 유인은 지역난방공사의 내부수익률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항목별 평가를 바탕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과 비슷한 상황인 연료별 대안에서 벗어나 윈-윈 해법(win-win solution)을 탐색하기 위해 대안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안의 확장은 각 이해당사자간의 타협의 여지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확장된 대안 중 가장 시행하기 용이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장단기 정책 제언을 하였다.